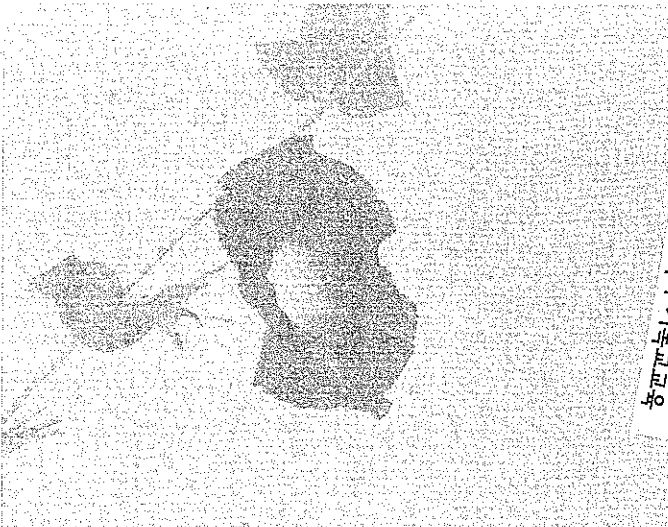


AUTHOR 유해무

TITLE 교회의 역사와 신앙고백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IN 생명의 양식



교회의 역사와 신앙고백

-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유해무 교수 | 고려신학대학원 교의학

교회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계기로 작성한 고백서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예라면, 대부분의 고백서는 후자에 속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니케이신경과 성령님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고백서도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시대에는 중세 로마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을 반박하고 이신칭의 등을 고백하는 루터파/개혁파 신앙고백서도 있다. 또 인간의 전적 타락과 예정론, 그리고 성도의 견인을 다루는 도르트신경도 있다. 본고는 이 가운데 고대교회에서 고백한 삼위일체론을 정리하여 보겠다.

교회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한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고백이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계기로 작성한 고백서도 있다. 전자의 경우 사도신경이 대표적인 예라면, 대부분의 고백서는 후자에 속한다.

고백의 원형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시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다. 제자들이 여러 이름을 갖다 대었다. 그때 다시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 베드로의 대답은 간결하고 분명하였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16:16) 이 질문과 고백의 장면은 아주 시사적이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헤롯의 아들 분봉왕 빌립보가 정한 수도였다. 그곳은 헤르메스(행 14:12)의 이름로서 목자들과 양떼를 지키는 신이라는 판(Pan)의 신전이 있었다. 신전은 높이가 40m, 길이가 70m나 되는 큰 반석 절벽 밑바닥에 석굴을 포함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걸으려는 가이사(Caesar)에게 바친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그 반석 아래로는 거의 20m나 되는 모와 같은 곳에서 물이 평평 솟아난다. 요단강의 중요한 발원지이다. 헬몬산(2816m) 남쪽 종턱에 자리 잡아 남쪽으로는 갈릴리 호수와 그 지점이 훤히 보이는 곳이다. 엄청난 반석과 이교 신전이 있고, 물이 평평 솟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물으셨다. 고백의 의미를 이처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배경도 없을 것이다. 반석과 수원이라는 자연 지형도 그리하거나와 무엇보다도 당대의 종교와 시대정신의 상징 앞에

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을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의 종교와 정치권력, 그리고 시대정신을 부인하고 자기만을 시인하는 고백을 원하셨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다(마 10:32). 시인은 고백이며, 우리 성경이 이 말을 고백으로 번역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고백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시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야 마르게 고백할 수 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물으신다. 이 질문에 대해 교회는 계속 응답해야 한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답하여야 하는 응답의 모범이다. 이 고백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예수님 스스로 고백자이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대제사장의 관저 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였다(마 26:70, 72, 74).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는 본디 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셨다(딤후 6:12). 증언은 시인이거나 고백과 같은 단어이다. 입의 고백과 삶의 증거에서 일관성을 지키신 예수님이 첫 고백자이다. 그리고 고백은 결국 순교로 결말을 맺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관된 고백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홍성된 증인”(계 1:5)이다. 증인이라는 헬리어에서 ‘순교자’라는 서양말이 나왔다. 스테반보다 앞서 예수님이 첫 순교자이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이 이 고백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롬 10:9-10). 고백은 동시에 고난을 뜻한다. 고백을 끝까지 고수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 신자는 고백자로서 항상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누구냐?”는 질문을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 물으신다. 이 질문에 대해 교회는 계속 응답해야 한다.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답하여야 하는 응답의 모범이다.
이 고백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교회사에 나타난 신앙고백을 살펴보자. 이것은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고백자와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사도신경

한국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한다. 우리가 공 예배시에 고백하는 신경은 ‘사도신경’이라 알려져 있고,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의 대표적인 신앙고백이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라틴어를 사용한 교회와 이 교회를 개혁한 개신교회를 포함한다.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역들을 진술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고백함으로써, 교종과 교인들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확인시킨다. 예배와 그것의 한 부분인 신앙고백이 삼위와의 교제를 상징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 고백과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해야 한다.

신경(고백)은 세례나 교리 교육, 예배, 설교 및 이단 투쟁과 축사 등 공적 목적에서 사용되었다. 고대 교회에서부터 출현하여 사용된 신경들은 무엇보다도 세례와 연관되어 있다. 현대의 한국교회 세례 의식에는 신앙고백이 크게

부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고대 교회에서는 달랐다. 세례 의식은 세례 이전의 식과 세례 의식 자체로 양분된다. 세례를 준비하는 사순절의 요리문답 교육 기간 중에, 감독은 진보한 학습자에게 신앙고백을 전달하고, 그 고백을 암송하도록 하면서 두 주간 성경을 해설한다. 이것을 신앙고백의 전수(傳授)라고 한다. 그러면 예비 수세지는 부활 전날 저녁에 시행되는 세례 의식이 있기 직전에 공중 앞에서 동쪽을 향하여 서서 그 고백을 낭송한다. 이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순서이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함, 또는 신앙을 고백하는 복창으로 전수 행위에 상응하는 응답(應答)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는 세례단 물 안에 서서 3번 삼위 하나님 신앙을 질문 받는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라틴어 Credo).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때 Credo' 라는 답변에 감독은 수세지를 물속으로 넣는다. 이처럼 성경은 애초부터 세례 의식의 준비인 요리문답 교육과 세례의식 자체를 떠나서는 생각될 수 없었다. 이미 지적된 대로 신앙고백은 세례 의식 자체에서 신앙을 암송으로 낭송하는 진술체와 문답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런데 문답 전에 행하던 고백의 전수와 응답은 성인 세례의 회개성과 더불어 사라지고, 6세기경부터 문답 형식의 신앙고백이 다시 진술식으로 정착하면서 예배 중에 함께 고백하는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은 진술 형식으로만 고백되고, 문답형식은 사라졌다.

성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어떤 표지가 되는 것이냐(聖經(聖經=표)이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하여 구별되는 표를 고백을 통하여 가지게 된다.

성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고백을 가진 자에게 어떤 표지가 되는 것이냐(聖經(聖經=표)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구별되는 표를 고백을 통하여 가지게 된다. 사도신경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사도들과 어떤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거룩하게 미화된 전승이 적용하고 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방언을 구사하면서 하나의 신경을 합작했다. 즉 서로 떨어져서 예수님을 전도하면서 다른 교리들을 설교하므로 전도를 받을 이들이 서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앉아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장래의 선교를 위한 간략한 표(신경)를 만들되, 각자가 한 항목씩 기여 했다. 그리고 이 표를 신자들에게 표준 교훈으로 전수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미화된 전승이 역사적인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15-16세기에 사도적 기원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이 나왔고, 칼빈 역시 사도적 기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성경이 사도적 전승을 잘 요약하고 있음은 쉽게 인정되어질 것이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교훈을 아주 잘 정리하므로 고백의 훌륭한 전행으로 우뚝 서 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언제이며, 어떤 배경에서 탄생되었을까? 고대 교회들 간에는 지리적 언어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적 일치와 형성

되어 있었다. 각 지역의 대표적 모교회(母教會)마다 세 번 'Credo'가 들어가
 는 신앙고백들이 대동소이하게 편제되어 있었다. 모신경(母信經)은 고유한
 발전 계보를 가지고서 조금씩은 다르게 변천되었다.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내가 믿는다'(Credo)는 고백은 동서 교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
 다. 이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를 성령으로 모으시고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서 찾을 수 있다. 세 번 'Credo'의 배경은 마태복음 28:19에 나타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의 'Credo'가 나타나서, 사도신경이 3부를 이루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Credo'와 세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며, 이는 고백의 내용이 삼위 하나님
 이며, 고백을 통한 세례 의식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정립, 곧 수세자가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상징한다. 또한 성찬 참여 역
 시 세례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한 뒤 그 삼위 하나님과의 계속적 교제를
 상징한다. 이런 과정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여 발전된 신경들 중에서 지금
 의 사도신경은 고대 로마신경을 모계로 하고 있다. 현재 형태의 사도신경은
 고대 로마신경의 여러 후손 중 하나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고대 서
 방교회의 신경'이다. 고대 로마신경에는 로마에 나타났던 이단들과의 투쟁 흔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 형성 시기를 주후 150년 경으로 잡을 수
 있겠다. 원래 형태의 언어에는 확정된 의견이 없다. 당시에 로마교회에는 아
 직도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이고 있었으므로, 헬라어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교중 일반의 공식 고백인 점을 고려하면, 라틴어로 기원했다고
 도 추정할 수 있겠다.

그러면 현재의 사도신경은 언제 완성되었을까? 지금의 형태는 벨리아 5세

'Credo'와 세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며, 이는 고백의 내용이
 삼위 하나님이며, 고백을 통한 세례 의식은
 삼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정립, 곧 수세자가 삼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상징한다.

기 말엽에 확립되었고, 8-9세기경에야 비로소 서방교회 전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신경의 고향은 로마였다. 그런데 헬라어(와 이후 슬라브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가 지금도 유일한 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니케이신경(아
 래 참조)이 공포된 후, 서방교회도 이 세 신경을 세례식에 사용하였다. 그러다
 가 원래의 로마신경이 5-6세기에 스페인 쪽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되어
 서 로마에 다시 재기용되었다. 말하자면 시집간 딸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친정살이로 돌아온 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이다.
 이에 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은 성경에 흔치는 않지만 그래
 도 터러 나온다. 이 고백의 내용은 교회사의 초기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부
 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도미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셨
 다. 그때 도미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요 20:28)라고 대답
 하였다.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는 '주는' '당신'을 존칭으로 번역한 반면에,
 도미가 고백한 '주님'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번역어로서 예수님을 하

나됨으로 고백한 내용이다. 이보다도 도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이 고백은 신앙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예이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믿음과 연관시키셨다. 자기의 부활체를 만지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20:27)고 하셨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는 말이다. 부활 전에도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다(요 2:11; 요 4:39, 8:30, 10:42, 11:45, 12:11 참조). 부인하지 않는 고백과 믿음은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 있었다. 고백하기 전에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창 15:6; 롬 4:3; 약 2:23에서 인용). 그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히 11:8). 고백은 믿음의 문제이며, 고백과 믿음은 삶의 문제이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행 20:28)는 사실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딤후 2:13)이 나타날 것을 말한다. 열두 사도에 속한 도미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이후 교회 전통에서 보자면, 이것이 신학이다. ‘신학’의 ‘학’은 원래 ‘하나님을 말할’ 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함이었다.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 10:30)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고 잡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요 10:32)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도 “하나님을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요 5:18)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였으나 믿지는 않았다.

열두 사도에 속한 도미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이후 교회 전통에서 보자면, 이것이 신학이다.
‘신학’의 ‘학’은 원래 ‘하나님을 말할’ 이었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함이었다.

교회 역사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인간일 뿐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장로 아이리우스(256-336)이다. 그는 성자가 계시지 않은 적이 있었다거나 출생하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다가나 무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즉 성지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과 다른 본질이며, 변화하고 변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성지는 첫 피조물로서 자기 의지로 성부의 의지와 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만, 성부의 본성에는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323년에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출교당하였다. 그러나 아이리우스가 이집트를 포함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지지를 받지, 기 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더 큰 회의를 소집한다. 황제 자신의 일정과 참석하는 감독들의 여행의 편의상 니코메디아 궁에서 가까운 니케이(현재 터키의 이즈미)의 여름 별궁이 장소였다.” 325년 5월 20일, 주로 헬리아어를 사용하는 동방에서 온 318명의 감독들이 공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들은 아이리우스의 주장을 물리치기 위하여 ‘동등 본질’을 삽입한 니케이 신경을 작성하고 채택하였다. “성지는 본질에서 성부와 동등하다.”(동등 본질) 또 성지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태어났다.”고 고백함으로써, 성지는 성부의 의지로 피조된 것이 아니라 성부의 본질에서 영원 전부터 태어

1) 니케이에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이며, 공회의가 열렸던 자리는 니케이 호숫가에 페리로 남아 있다.

났다는 교리를 정립하였다.

아타나시우스(294-373)는 현재 이집트에 속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집사였고 그 교회의 감독인 알렉산드루스의 비서로서 니케아 공회의에 참석하였다. 328년에 그를 이어 감독이 된 아타나시우스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니케아 공회의가 채택한 '호모우시오스'(동등 본질)를 정통의 시금적으로 삼았다. 이 용어는 성자가 신성에서 성부와 동일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성자의 신성을 구원론적 관점에서도 해명하였다. 성자의 성육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성육신은 로고스의 육체의 신격화요, 동시에 인간은 은혜로 신격화된다는. 그런데 이 신격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요 신지식(神知識)을 뜻한다. 니케아 회의가 성자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고백하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자들은 '정통'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그 이전에도 이단들이 있었지만, 교회사에서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가장 큰 이단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325년 니케아신경은 제일 마지막에 “성령님을 믿습니다”는 단순한 고백만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령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을 가리켜 성령부인자라 부른다. 이들은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보았다. 이런 상황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현재의 이스탄불) 공회의가 아타나시우스가 제시한 신화의 전통을 따라 성령님을 신화하는 투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통을 카파도키아 교부들이 계승하였다. 삼위일체론 논의는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는 세례 이니셜이 중요함 역할을 한다.

카파도키아 성대 선학자들은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는 자는 세례를 파괴한다고 비판하였다.

의 일체성에서 시작하여, 동등성에 기초한 삼위의 구별로, 그리고 다시 일체성의 확립으로 나타난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다(요 14:16).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마 28:20)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재확인하셨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눅 24:49)도 같은 말씀이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에 이 약속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행 2:33) 이제부터 예수님은 육신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후 5:16).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역사하신다. 이후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에는 세례 이니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파도키아 성대 선학자들(비실리우스, 그의 동생 그레고리우스와 이들의 친구 그레고리우스)은 성령님을 그냥 능력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선포하지 않는 자는 세례를 파괴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지 않는 자는 세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경고한다.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므로 삼위일체론이

완성된다고 확신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세 명령으로부터 교회는 '진리의 잣대'와 '신앙의 규범'을 형성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회의는 카피도키아 교부들의 믿음을 따라 "성령님을 믿습니다"에 부가적인 고백을 더 담았다. "곧 주님이시오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은 성부로부터 나오셔서 성부·성자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성령님의 신성을 고백하여 삼위일체론은 완성되었다.

성자는 참하나님이시고 참인간이시다

오래 전에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와 주변 교회에는 기독교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주장이 나왔다. 즉 말씀(로고스)이 인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양자(兩者)의 결합은 뜻과 경향의 일치일 뿐, 본성적인 일체성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안디옥 출신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감독이었던 네스토리우스였다. 그는 431년 에베소회의에서 이미 정죄당했다.³⁾ 그 이후에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타고났지만, 성육신 후에 한 본성만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성이 인성을 짐식하여 양성(兩性)이 아니라 밀려지면 '신인성'이라는 단성(單性)을 주장한다. 대표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거주하던 수도사 유태케스였다. 어떤 이(이폴리나리우스)는 예수님의 영혼의 자리에 로고스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훼손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 4차 공의회가 칼케돈에서 열린다.⁴⁾ 애초에는 이 전의

"참된 그리스도요 아드님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께서는

양성(兩性)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나눌 수 없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두 니케아 교백서가 충분하다고 보고 보완적으로 로마 감독인 레오의 서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자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키릴루스의 입장을 기초로 삼아 레오의 서신과 몇 동방 교부들의 입장을 담아 만든 문서를 전체 회의가 채택한다. 중보자 한 분 속에 일어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말하면서 동시에 구별을 말한다. 연합과 구별을 4개의 부정으로 표현하지만, 그 구체적인 연합과 구별의 방식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먼저 예수님은 참하나님이요 참인간임을 고백한다. 이 고백으로 가원설과 단성론을 거부한다. "한 분 그리스도요 아드님이시오 주님이신 독생자께서는 양성(兩性)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며, 나눌 수 없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전자 두 단어는 단성론에 대한 경계이고, 후자 두 단어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한다.

네스토리우스파는 431년에 이어 다시 정죄 당하자 동방으로 뿔어나갔다. 지금의 이라크와 인도를 넘어 중국까지 전파되어 경교(景教)로 알려졌다. 경주에서 발굴되었다는 돌 십자가는 경교의 영향이 신라에까지 미쳤다는 자료로 사용된다. 단성론을 따르는 교회도 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와 이집트에 뿌리를 둔 콥트 교회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유태케스의 주장을 거부하나, 칼케돈 회의와 그 고백을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용인하였다고 하여 키릴루스의 입장을 추종한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경교와 단성론을 따르는

3) 바울 사도가 활동하였던 에베소에 가면 북편으로 폐허가 된 교회당 건물이 있다. 마리아 기념교회인데, 이곳에서 431년 에베소회의가 열렸다.

4) 칼케돈은 유럽쪽 이스탄불에서 바다 건너 아시아 쪽의 두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인 카디코이로 추정된다.

교회들은 다 쫓겨온 고백을 거부한다.

이타나시우스 고백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구원론적으로 고백하고 삼위일체론의 기틀을 잡은 이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빌린 고백이 서방교회 안에 등장하였다. 대체로 10세기 이후에 나타났고, 12-13세기경에 헬리아어로 번역되었다. 그런데 고대교회에서는 이런 이름을 지닌 고백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이타나시우스'의 이름을 차용한 이 고백의 저자는 이타나시우스가 아니다. 이타나시우스의 이름이 들릴 정도로 삼위일체론을 잘 정리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삼위일체론을 잘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일체가신 삼위를 예배하되, 위격을 혼합하지 않으며, 본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위격이 한 분이요, 이드님의 위격이 한 분이요, 성령님의 위격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님과 이드님과 성령님의 신성은 하나이며, 이분들의 영광은 동등하며 위엄은 영원합니다."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리우스 회의 고백을 따라 성지와 성령의 신성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성론에 있어서 유리케스나 네스토리우스의 입장을 거부한다. 또 예수님은 이성적 영혼을 가지셨다고 하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주장을 거부한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칼 하나님이지요,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이 공존하시니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신성을 따리서는 아버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을 따리서는 아버님에게 열등하십니다." 이타나시우스 고백서는 고대교회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고백

이타나시우스 고백서는 고대교회의 신앙을 잘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보편 신앙' 또는 '정통 신앙'이라고 말한다. 보편 신앙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통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잘 고백한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서는 그 담고 있는 내용을 '보편 신앙' 또는 '정통 신앙'이라고 말한다. "구원 받기를 바라는 자마다 무엇보다도 보편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정통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이드님은 하나님이지요 사람이심을 믿고 고백한다. 보편 신앙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통 신앙으로는 그리스도의 양성을 잘 고백한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

이처럼 교회는 성경 계시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가르친다. 이 예수님을 문으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롬 5:2; 엡 2:18, 3:12).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 안에서 일어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 신앙은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하고 있으며, 이후 모든 고백의 좋은 모범이다. 사도신경이 세례고백이기 때문에 세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이 잘 드러난다. 니케아 신경과 이타나시우스 고백서도 다 이 모범을 따라 우리의 보편 신앙을 잘 정리한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교회는 자기 신앙을 지킨다.

예수님께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응답을 요구하신다. 교회학교와 교사의 중요한 사명과 책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서 삼위 일체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게 하는 일이다. 고백은 동시에 교제이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삶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과 구조

김은수 교수 | 숭실대학교기독교학대학원 조지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배경과 역사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심히 부패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16세기에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에 의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특별히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칼빈(John Calvin, 1507-1564)의 헌신과 노력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기초가 놓여졌다. 나아가 칼빈의 신화적인 영향 아래 존 녹스(John Knox, 1513-1572)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영국에서도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칼빈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영국 국교회(성공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추구하였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